

출판학 학위논문 어떤 것들 나와있나

중앙 경희 동국대 등 3개대 대학원서만 10년간 74명의 석사 배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발표자	논문 제목	비고
변영희 오경호	「사상계」에 관한 일연구 한국출판기업의 도산방지에 관한 시험적 연구	83
박봉서 윤형두 차무웅	기업사보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도서유통에 관한 비교연구 잡지기자의 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84
고덕환 김양수 김희락 김은미 김상훈 김미령	개화세력사회의 출판연구 독자의 도서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 교육에 관한 연구 「개벽」지에 관한 연구 잡지저널리즘에 있어서 사진기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잡지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85
이철지 금창연	문고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만화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86
윤주삼 이종국	출판경영인과 출판편집인의 광고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한국의 근대교과용도서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87
이상훈 이준교 박정희 조대형 지재원	청소년 독서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책의 매체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사진도서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미군정기의 출판연구 한국신문사의 출판사업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88
김두식 남석순 박원경 송상용 김숙희 이두영	한국출판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출판도서의 실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국제출판저작권 협약과 한국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출판의 문제와 생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변동과 잡지발달에 관한 연구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89
구운옥 박신희 백운관 송민정 전호지 전화수 최홍미 김영태	개화기 초등 국어과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 부설연구소 간행물에 관한 연구 한국 도서출판물 유통구조 변천의 사적 연구 전자출판의 미래와 전자도서의 전망 이용과 충족 접근방법을 토대로 한 출판물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출판매체 수용동기에 관한 연구 방송매거진에 관한 연구 1980년대 한국 잡지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90
이은주 김병준 고영수 이의용 이장추 부길만 박원동 문현숙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독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의 독서성향에 관한 연구 전자출판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사보의 실태에 관한 연구 제5공화국의 출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출판물 유통에 관한 사적 고찰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출판경영방안에 관한 연구 UR 지적소유권 협상과 국내 출판계의 대응방안 연구	91

발표자	논문 제목	비고
주상희 김정숙 김경일	한국철학서적출판에 대한 실태분석 출판인 최남선 연구 한말 기독교 신문에 관한 연구	92
김희운 이영미 김진희	한국기업사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전집출판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출판의 역할에 관한 연구	93
김혜숙 강광실 정재구 주경화 윤재준 윤세민	1980년대 한국출판의 유통에 관한 연구 단행본출판사의 독자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출판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유아교육용 잡지에 대한 연구 출판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기독교출판편집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94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발표자	논문 제목	비고
송기태	한국 기독교잡지사의 시대구분 및 시대별 특징에 관한 연구	91
김영선 김인중	민중서관에 의한 한국출판사 시대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의 출판자유와 윤리성에 관한 출판인의 의식 조사	92
이종찬 차근화 조용남 한정희	한국 인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체제와 잡지에 관한 연구 국제 저작권협약가입이 국내출판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출판물의 납본제도에 관한 연구	93
임종기 노혜경 유종반	출판물에 있어서 파라텍스트에 관한 연구 한국 이념출판물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연구 인천지방의 출판문화에 대한 연구	94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출판잡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발표자	논문 제목	비고
박충일 윤재민	개화기 活字 도입이 언론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출판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90
박시영 김영익	컴퓨터 편집시스템 구현을 위한 한글 워드프로 세서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서상품권의 정착과정과 활성화방안 연구	92
남미령 김인숙 김미숙 오정금	출판저작권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사례 연구 화면책 출판용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도서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검인정교과서 출판의 발행추이에 관한 연구 자소조합에 의한 전자출판물 본문체 개발과 미려도 연구	93
조영희 김진하	북한의 언론 출판에 관한 연구 디지털 자소의 위치이동에 의한 경제적인 CTS용 한글 글자꼴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	94

우리나라의 특수대학원에 출판관련 전공이 생기고 석사학위 논문이 선을 보인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판잡지 학위 논문을 쓰는 일은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고 한다. 그 어려움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출판학이 아직 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관계로 자료가 충분히 조사·연구·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1983년 중앙대 신방대학원에서 출판잡지 전공의 석사학위논문이 제출된 이후 동국대정보산업대학원, 경희대 신방대학원에 출판잡지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현재 그 논문 수는 74종(중앙대 54종, 경희대 10종, 동국대 10종)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연세대와 서강대의 특수대학원에 출판잡지 전공이 생겨 조만간에 특수대학원에서의 이 분야 석사학위자들은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74종 나와

특수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보면 사보나 교과서, 단행본, 문고본에 관한 연구보다는 잡지에 관한 연구논문이 월등하게 많다. 주제별 분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각 시대의 관심사항이 논문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전자출판에 관한 논문은 1990년 송민정씨의 「전자출판의 미래와 전자도서의 전망」이 처음. 이 논문은 출판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당시로서는 흥미를 끄는 논문이었으나 현재상황으로 보면 전자출판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논문이었다. 최근에 발표된 전자출판에 대한 논문은 거의 대부분이 글자꼴이나 시스템 등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연구발표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분야도 최근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학문적 접근방식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1989년에 발표된 박원경씨의 논문은 당시 국제저작권협약에 따른 한국 출판계의 몸살을 대변하면서, 그 대응정책을 찾고 있으나 지난해에 동국대에서 발표된 남미령씨의 「출판저작권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한 사례연구」는, 제목에서도 보이듯 저작권침해 사례와 구제를 예로 들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는 시대상을 과거와 현재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출판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보려는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논문도 다수 눈에

바로 이 광고입니다!

천재들의 세계가 궁금하신분!



전화로 들어보세요.
700-7942를 누른 후 안내말이 나오면 고유번호 6212를 정확히 누르세요.
(이용문의 : 718-5479)

김영사 '과학원 아이들'

참쌀떡의 달콤함, 메밀묵의 감칠맛



전화로 맛보세요!
700-7942를 누른 후 안내말이 나오는 도중에 고유번호 인 6942를 정확히 누르세요.
(이용문의 : 718-5479)

좋은 아침 '내 흑백사진첩 속의 서울'

블론이라 말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야기!



당신이 주인공일 수 있는 사랑이야기를 전화로 들어보세요. 700-7942를 누른 후 안내말이 나오면 고유번호 6478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용문의 : 718-5479)

유정 '유리상자 속의 사랑'

진리한토막을 듣고 끄꿍 얼은 가슴을 녹이세요!



「큰마누라, 작은마누라」
700-7942를 누른 후 안내말이 나오면 고유번호 6363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용문의 : 718-5479)

서해문집 '중보러 짚어 오자마'

천자문에 숨어있는 '걸궁할 속궁합'의 신비!



나는 몇 월생 무슨 달일까?
700-7942(친구사이)를 누른 후 안내말이 나오는 도중에 고유번호 6214를 정확히 누르세요.
(이용문의 : 718-5479)

현일사 '소설 천자문'

(각 일간지 출판광고에서 발매)

* 현재 100여개 출판사와 협찬 중

색다른 광고효과를 느껴보세요 !!

지금 우리 출판계는 판매실적보다 높은 광고비, 한정된 광고지면의 문제와, 입시보다 치열한 광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고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을 치루듯이 확보한 지면은 대부분 하루가 지나면 독자들의 손을 떠나고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출판계의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3분통신은 출판사와 독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려 합니다. 음성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신간 안내는 국내 처음으로 전화 한 통으로 도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독자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또한, 독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책 내용을 듣게 되므로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광고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카피·녹음 제작비 일체를 본사가 부담하므로 귀사에서 700 전화 이용방법을 돌출안내만 하시면 되며,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므로 독자의 폭이 넓어 그만큼 판매실적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영업사원 모집(출판영업 경험자)

3분통신기획

전화: 718-5479 팩스: 718-8552

된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출판유통에 관한 논문들.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출판계에서 다년간 출판유통에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들로 윤형두, 이두영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또한 출판잡지 전공의 석사학위자들 중에 거의 1세대에 속하고 있는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들의 논문은 현장의 경험과 학문이 결합된 결과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출판유통에 관한 논문중에 재미있는 것은 유통을 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백운관씨의 「한국도서출판물 유통구조 변화의 사적 연구」는 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의 변화를, 부길만씨의 「한국출판물 유통에 관한 사적 고찰」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출판유통사를 각각 다루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 1980년대 한국의 출판유통상황을 사회적 변화와의 상호관련속에서 김혜숙씨가 「1980년대 한국출판의 유통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내놓은 것이다.

현재 출판 잡지인의 의식구조를 다룬 논문으로는 4종이 나와있다. 이 논문들은 설문을 작성해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출판 잡지인의 의식구조와는 별도로 출판인물론을 펼치고 있는 논문도 있어 눈길을 끈다. 최초이면서 지금까지는 유일한 출판인물론으로 꼽히고 있는 김정숙씨의 「출판인 최남선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은 최남선을 문필가, 사회운동가로 보지 않고 출판인으로 봄으로써 출판학의 분야를 인물론까지 확장하고 있다.

정상계도 진입 못한 출판학 반영

올해 발표된 임종기씨의 「출판물에 있어서 파라텍스트에 관한 연구」 또한 기존의 출판물에 대한 생각들을 역으로 뒤집고 있는 논문이다. 출판물에 있어 중요성 내지 가치를 부여해 온 '내용'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포장하고 있는 파라텍스트로서의 출판디자인과, 표지·제목·저자명·프릴림·타이포그래피·사진 등이 책의 역할과 기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5장에 걸쳐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이철지씨가 문고본의 역사와 한국문고본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쓴 「문고본에 관한 연구」, 금서를 중심으로 정부의 출판정책을 연구한 이장추씨의 「제5공화국의 출판정책에 관한 연구」, 민중서관을 끌어들이 한국출판의 사적 흐름과 함께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김영선씨의 「민중서관에 의한 한국출

판사 시대구분에 관한 연구」,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 출판현실을 살펴보고 있는 유종반씨의 「인천지방의 출판문화에 대한 연구」, 남한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조영화씨의 「북한의 언론출판에 관한 연구」 등도 출판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색적 주제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이 관계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다. 현재 그 통로 역할은 출판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출판연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요약문만이 실리는 정도이다. 더불어, 출판사에서 출판잡지학위논문들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10여년의 세월과 많은 석사학위자들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판학'이 정상계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 단적인 예로, 출판잡지인이 신방대학원이나 그와 유사한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논문작성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출판연구소 김희락 전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강사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져서 강의의 개설에 일관성이 없고, 논문지도면에 있어서도 강사와 학생이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때문에 "전체학생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깊이와 넓이가 모자라는 함람미달의 논문도 있고, 방법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논문도 다수있다"고 말한다.

김희락씨의 말은 곧 출판관련자료의 확보와 함께 대학에서의 관심, 출판전공자의 교원화 등이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성수 기자